

# 자동차에서 쿠키 구운 미국 기상청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 기관이 치솟은 차량 내부 온도로 쿠키를 굽는 이례적 미션에 도전했다.

지난 20일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텍사스주 모처에서 진행된 차량 내 쿠키 굽기 실험 과정과 결과를 공개했다.

NWS가 희한한 실험을 기획한 이유는 올해 몰아친 유례없는 열파다. 여름이면 민간이나 대학이 차량 내부 온도로 달걀, 피자, 쿠키 굽기에 나서고 있지만 NWS까지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NWS 관계자들은 텍사스주 모처 피악벌에 차량을 세운 뒤 대시 보드에 쿠키 반죽을 올려놨다. 이때 외부 온도는 약 40°C였는데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2배가 넘는 약 90°C였다.

약 4시간이 지난 뒤 꺼낸 쿠키는 먹어도 좋을 만큼 충분히 구워졌다.

NWS 관계자는 "쿠키가 황금빛 갈색은 아니지만 완전히 익었다."면서 "차내에 설치한 온도계는 4시간 평균 온도가 85.6°C 이상임을 알려줬다. 창문을 모두 올린 차량 내부의 온도는 여름철 외부에 비해 2배 이상 솟구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NWS가 차내에 쿠키를 구운 4시간 동안 평균 온도는 화씨 186.1°F(섭씨 약 85.6°C)였다. 사진=facebook(NWS)

NWS는 이번 실험 결과를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환경오염이 야기하는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철 빈발하는 차량 내 유아 및 반려동물 방치 사고 역시 줄어듦을 기대했다.

점차 이상 고온 현상이 심해지는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한여름 차량 안에 쿠키를 넣고 굽는 실험이 연례 행사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NWS같은 국가 기관이 여기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WS 관계자는 "텍사스도 한여름 무더운 지역이지만 이보다 더한 주는 차에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쿠키가 노릇노릇 익어버린다."며 "폭염에 차량을 세울 때는 가급적 땀벌을 피하고, 차량을 잠그고 불임을 보기 전 반드시 아이나 동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여름 차량에 생명체가 갇힌 경우 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는 활동을 허용한다.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가 이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호섭

LA/OC/San Bernardino/Riverside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호섭 장의사**  
FDR 4701  
**시신 방부사**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당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매장, 화장, 장례보험  
풀러턴 소재 스킷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c.714.951.2520**  
**o.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어바인 Total Care 임플란트 치과

###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받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

